

「추일서정」 _ 김광균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가을날의 쓸쓸한 풍경을 묘사하고 그로부터 느껴지는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낸 시이다. 시의 앞부분에서는 감정의 직접적 제시 없이 근대의 도시 문명과 관련된 소재들을 통해 독특한 비유를 구사함으로써 화자의 눈에 비친 낯설고 황량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행동과 함께 그가 느끼는 애수와 고독을 드러내고 있다.

- 1~3행: 쓸쓸한 낙엽의 모습
- 4~7행: 가을 햇살 속 길과 들판의 모습
- 8~11행: 나무, 공장, 구름의 쓸쓸한 풍경
- 12~16행: 황량한 풍경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

✓ 주제 :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고독감

- ① ‘폴-란드 망명정부’, ‘도룬 시’ 등 이국적인 정서를 환기하는 시어를 활용하여 소재로부터 연상된 내용(전쟁으로 인한 폐허에 관해 연상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 ② ‘포플라 나무’가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모습을 동물의 ‘근골’과 연관 짓고, ‘구름’을 ‘셀로판지’라는 재료와 연관짓는 등 자연물을 이질적인 소재와 연관 짓는 방법으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와 같이 청각적 심상을 시각적 또는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하는 공감각적 심상과, ‘홀로’를 호올로’라고 표현하는 시적 허용을 통해 풀벌레 공연히 발로 차거나 허공에 돌팔매를 띄우는 화자의 행위에 담긴 정서적 의미(쓸쓸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이 시는 적막한 가을 풍경을 그려 내는 데에 동원한 소재들을 통해 도시 문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라는 시행은 근대 문명과 관련된 ‘공장’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그 지붕이 마치 야수처럼 ‘흰 이빨을 드러내인’ 모습을 나타낸 표현으로, 이는 근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각적 심상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는 외형적 유사성이 있는 ‘낙엽’과 ‘지폐’를 ‘A는 B(이다.)’의 형식을 사용해 연결한 은유로, 발행 주체가 ‘망명정부’임을 고려하면 대상의 쓸모없음을 함의하는 표현인 것 같다.
- ⑥ ‘구겨진 넥타이처럼’은 조사 ‘처럼’을 사영하여 보조 관념인 ‘구겨진 넥타이’와 원관념을 연결한 직유로,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길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표현인 것 같다.
- ⑦ ‘일광의 폭포’는 원관념 ‘일광’을 보조 관념 ‘폭포’에 빗댄 ‘A의 B’ 형식의 은유로, 가을날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다.
- ⑧ ‘풍경의 적막’은 가을날의 ‘풍경’을 ‘장막’의 모습에 빗댄 ‘A의 B’ 형식의 은유로, 화자가 바라본 공간의 풍경을 마치 평면에 투사되거나 그려진 것인 듯이 형상화한 표현인 것 같다.

[T H E - 깊 은 독 해]

*제목 '추일서정'은 가을날의 생각과 느낌이라는 뜻이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 낙엽을 망한 나라의 화폐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망한 나라의 화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낙엽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폴-란드'는 이국적인 이미지를 환기한다.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 '포화'는 총포를 쏠 때 일어나는 불을 말하며,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황량함, 공허함의 이미지를 가진다.

도론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 '도론 시'는 폴란드 중부에 있는 상공업 도시의 이름으로, 이국적인 이미지를 환기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 구불구불한 길을 직유법을 통해 넥타이로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때, '길'의 보조 관념은 '한 줄기'가 아니라,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이다.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 '일광의 폭포'는 눈부시게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모습을 폭포로 비유하여 나타낸 표현이다. 이때 '사라지고'는 소멸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 이때 '조그만 담배 연기'는 뒤에 나오는 '급행차'가 뿜는 굴뚝 연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허무함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 '새로 두 시'는 오후 2시라는 의미이다. 이때 '급행차'는 도시적이고 문명적인 소재를 뜻한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 이때 '근골'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의인화한 표현이다. 즉, 해당 문장은 포플라 나무의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라는 의미이다. (근골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사건을 찾아보자.)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 '공장'의 삭막한 모습을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때 '흰 이빨을 드러낸 채'라는 표현은 근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동물적 이미지를 통해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 위 문장의 '흰 이빨'과 '꾸부러진 철책'은 냉혹함과 비정함의 이미지를 환기하며, 도시 문명의 삭막함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 구름을 셀로판지로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다.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은 가볍고 쉽게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구름을 의미한다.

▶ 쓸쓸하고 황량한 가을날의 풍경 (선경)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 지금까지 정경 묘사만 하다가 해당 행 이후부터 화자가 등장하고, 정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즉, 선경후정 방식의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다. 이때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라는 표현은 화자의 쓸쓸함이 나타나는 표현이다. 공감각적 심상 또한 사용되고 있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청각의 시각화,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는 청각의 촉각화에 해당한다.

호올로 황량(荒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 '호올로'는 홀로의 시적 허용 표현이다. '황량한'이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직접 표출되고 있다. (황량하다는 표현이 왜 정서를 표출하는 시어인지, 황량하다는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면 사건을 찾아보자. 공부가 될 것이다.)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 '돌팔매'는 무엇을 맞히려고 돌맹이를 던지는 짓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 무표함과 황량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 쪽에

→ 화자에 눈에 비친 기울어진 풍경을 장막에 비유하며 평면에 투사되거나 그려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때 '기울어진 풍경'은 쓸쓸한 풍경을 나타낸 말이다.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잠기어 간다.

→ 던진 돌이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고독한 반원을 이루며 잠기어 간다고 나타내고 있다. 즉, 화자가 고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잠기어 간다'는 표현은 슬픔과 소멸의 이미지를 환기하며, 벗어날 수 없는 고독감을 의미한다. 또한 '고독한'이라는 시어는 화자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 황량한 가을날의 고독한 화자의 모습 (후정)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현대인]
- 상황 : 가을날의 쓸쓸한 풍경을 바라보며 고독감을 느끼고 있음
- 정서·태도 : 황량함, 고독함, 쓸쓸하고 애상적인 어조

[연 관 - 기 출 문 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에 이즈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푸라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

(나)

아마존 수족관집의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여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컵바퀴에 소음 부글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 신을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 후리지아꽃들이 만발했다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④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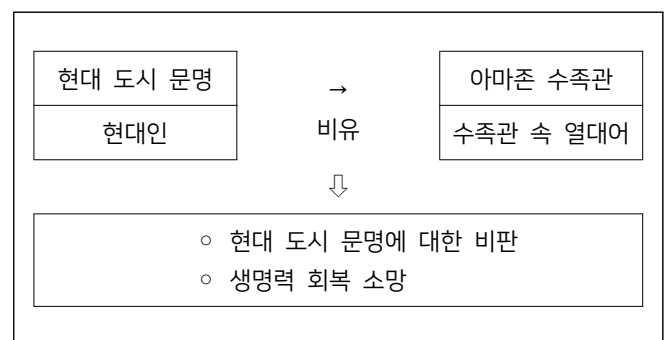
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추일서정」은 시각적 이미지와 원근법을 사용하여 도시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화적 구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나 그에 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물질문명적 소재를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 ① ‘낙엽’과 ‘포푸라나무’는 근경, ‘급행 열차’와 ‘구름’은 원경을 이루면서 시 전체가 하나의 풍경화처럼 구성되는군.
- ② ‘폴-란드 망명정부’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군.
- ③ ‘흰 이빨’을 드러낸 ‘공장의 지붕’과 ‘돌팔매’가 잠기어 가는 도시 풍경을 통해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④ ‘셀로판지’는 물질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구름을 표현하는 보조관념으로 쓰여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있군.
-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소리까지도 시각화한 표현으로서 작품의 회화성을 형성하는군.

3. (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② ㉡: 도시 건물의 철근과 간판에서 열대 아마존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 ④ ㉣: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로 볼 수 있다.
- ⑤ ㉤: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시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고 성장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도시 공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었다. 현대시는 이러한 도시에서의 삶이 인간에게 주는 상실감과 허무감, 절망감, 고뇌 등을 시적 관심의 대상으로 다루어 왔다.

1930년대의 경성은 식민 정책에 의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도시로서 이전과는 모습이 크게 변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당시 새롭게 등장하던 한국 모더니즘 시에 영향을 끼쳐, 막연한 이국적 정서나 서구 취향, 혹은 도시 문명에 대한 동경 등이 시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등장한 낯선 거리 풍경과 군중의 모습, 외래 문명에 대한 거부감, 각박한 도시인의 삶 등으로 시인의 시선이 옮겨 가면서, 근원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우울감 등이 시의 지배적 정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김광균의 시 「추일서정」은 도시적인 소재나 사물, 관념 등을 그려 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하고 일상적인 관념을 깨뜨리는 낯선 비유를 활용한다. ㉠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은 당대의 도시 현실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비판적 인식을 유도한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그것을 재현하는 시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 변하였다.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고 대도시가 팽창하면서 현대시에서 도시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 내거나 자아의 상실과 인간 소외 등을 첨예한 이미지로 그려 내는 경우도 있고, 도시를 경험하는 주체로서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김혜순의 시 「별을 굶다」는 복잡한 대도시의 바쁜 생활 속에서 내면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소외된 삶과 그 극복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나)

낙엽(落葉)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紙幣)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急行車)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팡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荒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風景)의 장막(帳幕) 저쪽에

고독한 반월(半圓)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

* 도룬 시: 토론 시. 폴란드 중부에 있는 상공업 도시.

(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려가는 /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 불가마 하나씩 갇혀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굶는 ㉢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 김혜순, 「별을 굶다」 -

4.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 ‘낙엽’을 통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를 떠올린 것에서, 도시에서 느끼는 무상감은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 ② (나):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진 한 줄기 ‘길’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벗어나 도시화 이전의 근원적 세계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화자의 동경을 떠올릴 수 있다.
- ③ (나): ‘황량한 생각’을 떨치고자 ‘돌팔매’를 던지는 화자의 모습에서, 변화된 도시 풍경이 주는 낯센과 거부감을 떨쳐 내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싶다는 열망을 떠올릴 수 있다.
- ④ (다): ‘사당역’에서 마주친 무표정한 ‘얼굴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화자는 참된 자아를 잃고 정체성의 혼란에 직면한 대도시 시민들의 무기력한 삶을 비판하고 있다.
- ⑤ (다): ‘운명의 별빛’이 닿을 수 없는 ‘땅속’의 삭막한 풍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화자는 각박한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 도시 군중의 소외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5. ㉠을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광의 폭포’라는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활기찬 도시를 바라보는 화자가 서구 문명에 대해 품고 있는 동경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달리는 ‘급행차’의 연기와 사라지는 ‘담배 연기’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인해 변화된 도시 풍경에서 떠올린 화자의 상실감을 암시하고 있다.
- ③ 동물 신체의 ‘근골’이나 ‘흰 이빨’에 연결시켜 도시적 소재를 비유한 것에서, 삭막한 도시 풍경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떠올릴 수 있다.
- ④ 자연물인 ‘구름’을 ‘세로팡지’라는 낯선 소재와 결합한 것에서, 도시 풍경을 통해 화자가 떠올리는 이질적인 느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자옥한 풀벌레 소리’는 청각을 시각으로 전환시킨 공감각적 심상으로서, 도시의 가을 풍경을 접한 화자의 쓸쓸해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6.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감탄문의 반복을 통해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다)는 의문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구심을 암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수미상관을 활용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⑤ (나)는 의인법을 통해, (다)는 활유법을 통해 화자의 감정 이입을 나타내고 있다.

7. (다)의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을, ㉢은 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상실감을 가리킨다.
- ② ㉡는 타인과의 경쟁심을, ㉢은 그 경쟁심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도시인들의 얼굴 모습을 가리킨다.
- ③ ㉡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은 그 동경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 ④ ㉡는 도시인의 마음속에 간직된 삶의 의지를, ㉢은 그 의지가 표출되어 남들에게 비치는 도시인의 얼굴 모습을 가리킨다.
- ⑤ ㉡는 타인과의 공존을, ㉢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본모습을 감춰야 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떠올리게 한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은 폴 - 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육(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세로팡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 - 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

(나)

담쟁이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업혀**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새가 푸른 하늘에 **눌려** 납작하게 날고 있다

들짚레가 길 밖에서 하얀 꽃을 **버리며**
빈자리를 만들고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하늘이 내려와 누런 돌멩이 위에 **엎힌다**

길 한켠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 오규원, 「하늘과 돌멩이」 -

8.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9. 다음은 (나)에 대한 <학습 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하늘과 돌멩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각 연의 서술어에 주목하여, 이 시에 나타난 새로운 관점을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교하여 탐구해 보자.

	사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서술어	새로운 관점
1연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란다.	업혀	㉠
2연	새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눌려	㉡
3연	들짚레	들짚레의 꽃이 떨어진다.	버리며	㉢
4연	하늘	하늘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엎힌다	㉣
5연	모래	모래가 바위 밑에 깔려 있다	들어올려	㉤

- ① ㉠ : ‘업혀’에 주목하면, 담쟁이덩굴은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며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로 볼 수 있다.
- ② ㉡ : ‘눌려’에 주목하면, 새가 아무 제약 없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게를 견디며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 : ‘버리며’에 주목하면,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짚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 : ‘엎힌다’에 주목하면, 하늘은 땅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길에 가깝게 내려와 돌멩이 위에 닿는 존재로 볼 수 있다.
- ⑤ ㉤ : ‘들어올려’에 주목하면, 모래는 바위 밑에 깔려 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10. 이미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낙엽'을 '망명정부의 지폐'에 연결하여 낙엽의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고독한 반원'으로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빈자리'를 '들쭉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하여 비어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
- ④ (가)는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나)는 '길 밖'과 '길 한편'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는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나)는 '담쟁이덩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허공'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군.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③

- ③ (가)는 ‘낙엽’, ‘도룬시의 가을 하늘’ 등을 통해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여름밤’이라는 시어를 통해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생명력이 상실된 도시 문명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SCAN]

- ① 역설적 표현이 (나)의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에 나타날 뿐,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한 부분이 (나)에서 ‘여름밤’의 반복을 통해 나타나고 있을 뿐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가)에는 시상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⑤ (나)에서 ‘수족관’과 ‘아마존강’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아마존 강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생명력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가)에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이 없다.

2.

[정답 SCAN] ②

- ② <보기>에서 「추일서정」의 작가가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나 그에 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폴-란드 망명정부’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했다는 ②번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전반부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근경과 ‘급행열차가 들을 달리’는 원경이 묘사되면서 원근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후반부에서 ‘포푸라나무’가 서 있는 근경과 ‘구름’이 하늘에 떠있는 원경이 묘사되면서 원근법이 나타나고 있다.
- ③ 공장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은 퇴색한 공장 지붕을 묘사한 것이면서 화자의 황량한 정서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고독한’이라는 시어를 통해 알 수 있듯 반원을 그리며 날아가는 ‘돌팔매’는 화자의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풍경임을 알 수 있다.
- ④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은 구름을 셀로판지에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⑤ ‘자옥한 폴벌레 소리’는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이므로 회화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3.

[정답 SCAN] ③

- ③ ‘㉠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원시 자연의 생명력이 결핍되어 갈증을 느끼는 모습이다. 따라서 답은 ③번이다.

[오답 SCAN]

- ① 아스팔트는 도시 문명의 소재이고, 고무 탄내는 불쾌함을 환기하는 후각적 심상이므로 ㉠은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도시 건물의 철근에서 아마존의 열대 우림을 연상하였고, 간판이 발산하는 열기에서 아마존의 열대 기후를 연상했다고 할 수 있다.
- ④ 시를 선물하니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시는 물질 문명과 대비되는,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⑤ 꽃이 만발한 모습은 넘치는 생명력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다.

4.

[정답 SCAN] ①

- ①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는 정치적으로 쇠락해 가는 상황에서 발행한 지폐이다. 화자가 ‘낙엽’을 이처럼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은 대상과 연관 지은 것은, 가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일제 강점하라는 당시의 시대적인 현실과 관련지어 허무감, 무상감 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SCAN]

- ② (나)에서 화자가 ‘길’을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사라진다고 한 것은 가을 풍경을 보며 느낀 쓸쓸한 감정과 관련되는 것이지, 도시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동경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다.
- ③ (나)의 화자는 문명과 어우러진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황량함을 느끼고, 낯섦과 거부감에 대한 대응으로 ‘돌팔매’를 던진다. 이 행동에 도시 풍경에 익숙해지고 싶다는 열망이 담긴 것은 아니다.
- ④ (다)에서 화자는 환승 장소인 ‘사당역’에서, 무표정한 ‘얼굴들’을 관찰하고 이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는 (가)와 관련지어 볼 때 복잡한 현대인들의 소외된 삶과 그 극복 의지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지, 화자가 이들의 삶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다)에서 화자가 사람들이 ‘땅속’을 ‘밀물져 가’는 모습을 관찰하여 묘사한 것은, 각박한 도시에서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견디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 감탄했기 때문이다.

5.

[정답 SCAN] ①

- ① 화자는 ‘길’이 햇빛 속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일광의 폭포’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가 바라본 도시의 가을 풍경 일부를 역동적인 느낌으로 묘사한 것이지, 서구 문명에 대한 화자의 동경의 시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SCAN]

- ② 문명의 개발로 도입된 ‘급행차’의 연기를 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고 소멸의 이미지도 드러내는 ‘담배 연기’에 비유한 것은,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인한 변화 속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도시의 풍경을 동물 신체의 단단한 부분에 해당하는 ‘근골’이나 ‘흰 이빨’과 연관 지은 것은 화자가 삭막한 도시 풍경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④ ‘세로팡지’는 인간이 만든 가공물이다. 화자가 ‘구름’이라는 자연물을 이처럼 인위적인 이미지를 지닌 소재와 결합한 것은, 도시 풍경을 보며 느낀 이질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자옥한 풀벌레 소리’는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자옥한’으로 시각화하여 공감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옥한’은 ‘연기나 안개 따위가 잔뜩 끼어 흐릿한’이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가을 풍경이 주는 쓸쓸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6.

[정답 SCAN] ②

- ② (다)의 1연과 2연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화자는 ‘무표정한 저 얼굴’에 숨은 것에 대한 궁금증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SCAN]

- ① (나)는 도시의 가을 풍경을 평서문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감탄문을 반복하여 그에 대한 느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 ③ (나)와 (다) 모두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으로 현실을 풍자한 것도 아니다.
- ④ (나)와 (다) 모두 수미상관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나)의 ‘포플라 나무’가 ‘근골’을 드러냈다는 표현은 의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드러낸 것은 아니다. (다)에서는 활유법을 사용한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7.

[정답 SCAN] ④

- ④ 화자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열정이나 의지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그들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로 표현했다. 또한 그 의지가 겉으로는 무표정하게 드러난 것을 ㉡로 표현했다.

[오답 SCAN]

- ① ㉠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도 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한 상실감과 관련이 없다.
- ② ㉠는 저마다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지이지만, 이것이 타인과의 경쟁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 경쟁심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과 관련이 없다.
- ③ ㉠는 도시에서의 현실적 삶과 관련되므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도 동경하는 바의 실현을 위해 절제하는 모습과 관련이 없다.
- ⑤ ㉠는 타인과의 공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내면에 간직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는 그러한 의지가 표면에 드러난 모습으로, 공존을 위해 본모습을 감추어야 하는 처지와는 관련이 없다.

8.

[정답 SCAN] ⑤

- ⑤ 자연물인 ‘낙엽’, ‘길’을 각각 인공물인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구겨진 넥타이’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 ① 시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의 의미와 구조를 유사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 ② 이 작품은 ‘가을’, ‘일광(日光)’, ‘두 시’ 등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며, 유사한 문장 형태의 변주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폴-란드’, ‘자옥-한’, ‘호올로’ 등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④ 이 작품에서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9.

[정답 SCAN] ①

- ① ‘업혀’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매달려 붙어 있는 형상이므로, ‘업혀’ 있는 존재인 담쟁이덩굴이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공기를 누르고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담쟁이덩굴을 강인한 존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② 새가 하늘에 ‘눌려’ 납작하게 되었으면서도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새가 하늘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 ③ ‘버리며’는 꽃을 떨군 주체를 들쭉레로 설정한 표현으로, 이를 통해 들쭉레가 스스로 꽃을 떨어뜨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엎힌다’는 대상 사이의 접촉을 전제한 단어이므로, 하늘이 돌멩이 위에 엎힌다는 표현을 통해 하늘과 돌멩이가 떨어져 있지 않고 맞닿아 있으며 돌멩이가 있는 땅과 하늘 역시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 ⑤ 바위가 모래를 깔고 앉은 것이 아니라,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렸다는 것은 모래가 바위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10.

[정답 SCAN] ④

- ④ (가)에서 ‘길’을 ‘구겨진 넥타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길’을 도시적인 이미지와 연관 짓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SCAN]

- ① ‘망명정부의 지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므로, ‘낙엽’을 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낙엽이 생명력을 상실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상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돌팔매’의 하강 곡선을 ‘고독’하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들쭉레’가 ‘하얀 꽃’을 버리며 스스로 빈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떨어진 꽃이 아닌 꽃이 떨어진 빈자리의 공간적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에서 ‘허공’을 향해 돌팔매를 던지는 행위는 황량한 생각을 버리기 위한 것이므로, ‘허공’은 황량한 생각을 드러내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됨을 알 수 있고, (나)의 ‘담쟁이덩굴’이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허공’이 감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게 한다.